

II. 경제 · 정치 현황

1. 경제 현황

가. 국내경제

〈표 II-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e
G D P	US\$억	1,183	1,464	1,639	1,695	1,546
1인당 G D P	US\$	7,270	8,932	9,873	10,109	9,130
경 제 성 장 률	%	5.6	4.6	5.0	3.2	-1.2
물 가 상 승 률	%	3.1	3.4	4.4	8.7	1.9
재정수지/GDP	%	4.6	7.7	8.8	5.7	-4.2

자료 : EIU

(1) 경제성장

□ 1998년 이후 경제성장을 하락세로 전환

- 칠레는 1990년 이후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1995-97년간 7%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음.

- 그러나 아시아 국가의 경제위기 및 주요 수출품목인 동의 국제가격이 하락하면서 1998년 경제성장률은 3.4%로 둔화되었고, 1999년에는 -1.1%의 성장에 그침.
- 2000년에는 일시적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경기불안에 따른 기업투자 및 민간소비의 위축 등으로 칠레의 경제성장률은 2001년 2.9%, 2002년 1.9%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음.

□ 국제 동 가격의 상승으로 2003~07년까지 고성장 기조 유지

- 2002년까지 이어지던 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세계 경제회복에 따른 광산물, 공산품, 농수산물의 수출호조 등 긍정적인 대외여건과 낮은 이자율 수준¹⁾ 등 내부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2003년 3.3%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2004년에는 6%대의 고성장을 이루어내며 경제전반이 호조를 보였음.
- 2005년에도 동 등 수출원자재 국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주요 농산물의 수출호조, 이로 인한 국제수지의 개선, 내수 회복, 환율 및 물가안정, 재정수지 흑자전환, 외국인 투자 유입 증대 등 호의적인 대내외 여건으로 5.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6년에는 칠레의 세계 최대 동 광산인 Escondida에서 지속된 파업 여파로 4.6%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2007년 동

1) 칠레 중앙은행은 세계경기 불황의 심화로 국내경기가 위축되자 6.5%이던 기준금리를 2002년부터 계속 인하하여 2003년에 2.45%까지 인하한 바 있으며, 2004년 8월에는 1.75%까지 낮아짐.

생산의 정상화, 동 가격의 강세 지속, 내수 호조 등에 힘입어 5.0%의 성장세를 회복하였음.

□ 2008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로 2009년에는 1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전망

- 2008년 상반기까지는 국제 동가격 상승 기조 유지, 내수 호조 등에 힘입어 고성장세가 유지되었으나, 하반기부터 동가격 하락 반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 및 FDI 유입 감소 등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아르헨티나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전력 공급 불안정 등으로 산업생산 및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서 경제성장률은 3%대로 낮아졌음.
- 2009년 하반기 들어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동 가격도 반전에 성공하면서 수출도 감소폭을 만회하고 있으나, 상반기까지 이어진 급격한 민간 소비 및 투자 감소, 건설업 및 유통업 위축 등의 영향으로 1999년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소비자물가상승률

□ 2005년 이후 물가는 상승세로 전환

- 2004년에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수 증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폐소화 강세 및 정부의 긴축통화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1%까지 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였음.

- 그러나 2005년 이후 경기활성화, 아르헨티나의 천연가스 수출물량 축소 및 고유가에 따른 생산비용 증대 등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승세로 전환됨. 이러한 상승 기조는 2007년까지 계속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물가안정목표 상한선인 4.0%를 넘어선 4.4%를 기록하였음.

□ 2008년에는 8%대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09년 들어 안정세 회복

-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조치, 아르헨티나와의 천연가스 협상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까지 이어진 국제 원유가격 및 식료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8.7%를 기록하였음.
- 칠레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2~4%)를 달성하기 위해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상향조정한 결과 2008년 9월 칠레의 정책금리는 8.25%까지 상승한 바 있음.
- 2009년 들어서는 전반적인 소비 부진과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추세, 그리고 폐소화의 강세 반전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은 크게 완화되어 1.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표 II-2〉

칠레의 정책금리 추이

(단위 : %)

2008.7	2008.8	2008.9	2009.1	2009.2	2009.3	2009.4	2009.5	2009.6	2009.7
7.25	7.75	8.25	7.25	4.75	2.25	1.75	1.25	0.75	0.5

자료 : 칠레 중앙은행

(3) 재정수지

□ 2004년 재정수지 흑자 전환 이후, 흑자폭의 지속적인 확대

- 칠레 정부는 2000년 이후 재정수지 흑자를 GDP의 1%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정수지 흑자정책(Structural Surplus Policy)의 추진, 국가재정관리 정보시스템(System of Information for the Financial Management of the State)의 구축 등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향상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3년 GDP 대비 -0.4%였던 재정수지가 2004년 2.1%를 기록하면서 흑자로 전환되었음.
- 2005년 이후에도 동의 국제가격 상승 및 FTA에 따른 수출 증가, 경기호조에 따른 세원 확대 등 재정수입의 증대로 재정수지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8.8%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도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세원 유지로 흑자기조가 유지되었음.

□ 2009년에는 6년 만에 재정수지 적자 반전 전망

- 2009년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 감소, 동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경기부양정책 추진에 따른 지출 확대, 2010년 대선을 앞둔 선심성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6년 만에 재정수지는 적자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반전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기관 및 경제전문기관들은 여전히 칠레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 전망, 국제 동 가격 추이 등을 고려할 때, 2011년 부터는 재차 흑자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II-3〉 칠레의 재정수지

(단위 : GDP 대비 %)

	2006	2007	2008	2009
재 정 수 입	25.8	27.4	26.4	20.3
- 조 세	17.0	18.9	-	-
• 민간 동부문	3.1	3.8	-	-
- 국영 동부문 수입(Revenue)	5.7	4.8	-	-
- 기 타	3.1	3.7	-	-
재 정 지 출	18.2	18.6	20.7	24.5
재 정 수 지	7.7	8.8	5.7	-4.2

자료 :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나. 대외경제

〈표 II-4〉 주요 대외경제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e
경 상 수 지	1,449	7,154	7,189	-3,440	-200
경상수지 / GDP	1.2	4.9	4.4	-2.0	-0.3
상 품 수 지	10,775	22,780	23,653	8,846	7,894
- 수 출	41,267	58,680	67,666	66,456	48,861
- 수 입	30,492	35,900	44,031	57,610	40,967
외 환 보 유 고	16,933	19,396	16,842	23,078	25,017

자료 : EIU

(1) 수출입동향

□ 2008년 이후 수출은 감소세로 반전

- 주요 수출 품목은 2008년 전체 수출액의 50%를 차지한 동을 비롯하여 과일, 셀룰로오스, 어분(Fish meal) 등이며 상기 품목들이 2008년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음.
- 2004년 이후 동의 수출물량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국제가격 상승으로 동 수출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2003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칠레 수출액 성장을 견인하여 왔음.
- 한편, 2009년에는 동 수출이 국제 시세 하락과 더불어 선진권과 아시아 국가의 수요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과일, 펄프, 어류 등 대부분 주력 수출 규모도 크게 감소함에 따라 연간 수출규모는 489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표 II-5〉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1~9월)
동	18,965	32,710	37,582	32,807	17,836
과 일	2,177	2,401	2,739	3,342	2,548
펄 프 류	1,650	1,904	2,927	3,296	1,839
어육 및 가공식품	2,589	3,152	3,240	3,461	247
기 타	15,886	18,513	21,178	23,550	1,302
합 계	41,267	58,680	67,666	66,456	23,772

자료 : 칠레 중앙은행

□ 수입의 절반 이상이 중간재로 국제유가의 급등과 더불어 수입액이 큰 폭으로 확대

- 칠레는 에너지 순수입국으로 원유를 포함한 중간재가 전체 수입액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008년 중간재 수입액은 35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입액의 60%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연료 및 운할유의 수입이 120억 달러를 상회함
- 2003년 이후 경제성장세의 회복 및 FDI의 유입 증대로 인한 수입 수요의 증대,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2008년 칠레의 전체 수입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57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9년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내수 위축으로 중간재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연간 수입 규모는 41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II-6〉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1~9월)
소 비 재	6,316	7,914	9,740	11,611	6,092
중 간 재	17,873	21,205	26,442	35,701	16,574
자 본 재	5,882	5,984	7,048	9,249	4,889
기 타	622	797	801	1,049	313
합 계	30,493	35,900	44,031	57,610	27,242

자료 : 칠레 중앙은행

□ **교역상대국으로 중국 비중 높아져**

- 2006년까지 칠레의 수출 비중은 미국이 15%대로 1위를 유지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아시아 국가, 특히 중국으로부터 동과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등 4개국은 칠레 총 수출의 47%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교역 상대국임.
- 칠레의 최대수출품목인 동은 아시아 지역에 반 이상이 수출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등의 순²⁾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수입은 FTA 체결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공산품 수입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부터는 중국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제2의 수입국으로 부상하였음.

〈표 II-7〉 주요 국가별 교역 비중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1~9월)
수출	미 국	15.1	15.2	13.6	11.3	13.8
	일 본	11.5	10.2	10.2	10.2	8.7
	중 국	11.1	8.4	15.4	14.4	20.6
	한 국	5.7	5.8	6.0	5.7	5.5
수입	아르헨티나	14.5	11.4	11.1	8.7	12.7
	미 국	14.6	14.6	16.4	20.9	19.6
	브라질	11.6	11.0	11.0	8.7	7.0
	중 국	7.7	9.0	10.8	10.5	13.1

자료 : 칠레 중앙은행

2) 2006년 기준으로 중국에 686천 톤, 일본에 677천 톤, 미국에 494천 톤의 동을 각각 수출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네 번째로 많은 양인 444천 톤이 수출됨

□ 2004~07년까지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기록, 2008년 이후 적자 반전

- 칠레는 1999~2003년간 GDP 대비 평균 1%대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4년 동의 국제가격 상승 및 중국의 동 수요 증대에 따른 수출 증대로 경상수지가 흑자로 반전, 2007년까지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여 왔음.
- 2007년 칠레의 무역규모는 총 1,116억 달러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며, 경상수지도 2005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72억의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2008년부터는 동 가격 급락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경상수지는 적자로 반전하였음.
- 2009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동반 급락하면서 교역 규모는 크게 줄었지만 수입 감소폭이 커서 상품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며 투자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소득수지 적자규모가 감소하여 경상수지 적자폭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 외국인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표 II-8〉 중남미 외국인 투자 누계

(단위 : 백만 달러)

		1994~1998	1999~2003	2004~2008	2007	2008	증감률(%)
중미 · 카리브	멕시코	11,036	20,295	22,974	27,278	21,950	-19.5%
	파나마	708	565	1,756	1,907	2,402	26.0%
	코스타리카	417	545	1,372	1,896	2,016	6.0%
	엘살바도르	240	256	684	1,509	784	-48.0%
	도미니카(공)	368	980	1,605	1,579	2,885	83.0%
	소계	14,425	39,921	34,267	40,637	38,439	-5.4%
남미	브라질	14,139	22,109	26,328	34,585	45,058	30.0%
	칠레	4,051	4,936	10,552	14,457	17,083	16.0%
	아르헨티나	6,529	8,075	5,874	6,462	7,979	23.0%
	콜롬비아	2,784	2,068	7,907	9,049	10,564	17.0%
	우루과이	148	283	1,188	1,223	2,044	67.0%
	소계	34,657	43,365	57,297	72,520	89,862	23.9%
중남미계		49,082	68,860	91,564	113,157	128,301	13.4%

자료 : ECLAC

□ FDI 유입액, 남미 국가 중 2위

- 칠레는 안정된 정치 및 경제상황, 개방화된 경제구조, 풍부한 지하 자원과 인프라 구축 등을 근간으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우수한 투자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실제로 칠레에 대한 FDI는 2002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 20억 달러 수준이던 FDI 유입액은 2008년 170억 달러를 돌파하여 중남미 제2위 FDI 유치국인 멕시코와의 격차를 40억

달러 대로 줄었음.

〈표 II-9〉 외국인투자법 600조에 의한 FDI 유입 (실투자액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1974~2008
전 체	4,637	1,799	3,185	1,359	5,243	69,900
광업 부문	349	589	1,126	304	2,366	23,538

자료: Prochile/Cochilco

- 칠레의 전통적인 투자 유치 부문은 동, 리튬, 요오드 등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개발 분야이며, 1974년부터 2008년까지 광업 부문에 누적된 실투자금액은 총 235억 달러로 전체 FDI의 34%에 달함.
- 2008년에는 하반기에 상당수의 메가 프로젝트들이 동 가격 급락,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으로 취소되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까지 이어진 동 가격의 폭등과 과거 추진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유입의 영향으로 광업부문 FDI 실투자액은 24억 달러(전체의 45%)에 육박하였음.
- 광업을 제외한 업종별 순위는 전력 및 가스(26%), 운송 및 물류(8%), 금융업(6%) 등의 순이었으며, 투자국별로는 캐나다, 스페인, 미국, 멕시코, 벨기에 등의 순이었음.

〈표 II-10〉 칠레의 국가별 순 FDI 유입

(단위 : 백만 달러)

	2005	2006	2007	2008
캐 나 다	84	1837	324	2190
미 국	-15	337	297	549
콜 롬 비 아	24	2	294	0.8
스 페 인	207	75	105	626
호 주	286	206	105	164

자료: ECLAC

- 2008년 주요 투자 사례를 살펴보면, 스페인의 최대 통신회사 Telefonica사는 칠레 CTC Telefonica를 15.8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캐나다 Scotia 은행은 칠레의 여신 순위 7위 은행인 Banco del Desarrollo의 지분(79%)을 매입하여 칠레의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음.
- 또한 스페인의 건설회사인 Abertis사는 지난해 칠레 고속도로 사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전력 부문에도 영국과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졌음.
- 2009년 칠레에 대한 FDI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중남미 여타 국가에 비해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우선 미국의 월마트가 칠레의 유통업체인 D&S사의 인수(36억 달러)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제 동 가격 회복 조짐에 힘입어 세계 최대 광산 보유기업인 BHP Billiton사는 지난해 연기했던 67억 달러 규모의 광산개발 프로젝트 재추진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임.
- 아울러 칠레 광업진흥공사(Codelco) 역시 그간 미루었던 광산 프로

젝트 발주를 개시할 것으로 보여, 2010년부터는 대 칠레 FDI는 광업 부문을 중심으로 재차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보임.

(3) 외채 상황

□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은 낮은 편

- 1982년에 중남미 외채위기의 영향으로 민간부문에서 해외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민간은행 외채 67억 달러의 지급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등 대외신인도 유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여 왔음.
- 1985~90년 중 채무주식화 방식(debt-equity swap)으로 외채를 재조정하여 약 100억 달러의 채무부담을 경감한 바 있음.
- 신흥시장 외환위기 여파로 해외차입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우량 기업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별 문제없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IMF의 자금지원은 받지 않고 있음.
- 2008년말 현재 총외채규모는 GDP의 36.1%에 해당하는 611억 달러로 다소 과다하나, 수출호조로 외채상환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2004년 23.6%에 달하였던 D.S.R.이 2008년 16.4%까지 낮아지는 등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표 II-11〉 주요 외채 지표

(단위 : 억 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¹
총 외 채 잔 액	454	480	586	611	605
총외채잔액/GDP	38.4	32.7	35.8	36.1	39.2
D. S. R.	15.1	19.7	14.1	16.4	16.4

자료 : EIU, 5-year forecast(2009, 11)

(4) 외환보유액

□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

- 2008년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30억 달러로서 상품수입의 약 5개월 분에 달하여 대외지급 및 외채상환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으며, FDI 유입 지속, 동 수출 회복 등으로 2009년 칠레의 외환보유액은 25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5) 국제신인도

□ 국제신용등급 상향 추세

- 칠레는 효과적인 재정·통화정책, 정부의 투명성, 금융부문 안정 등을 이유로 S&P, Fitch 및 Moody's로부터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A+, A, A1등급을 각각 부여 받음. 이들 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을 부여받고 있는 중남미 국가는 멕시코, 칠레, 브라질뿐임.
-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영 및 견실한 경제성장, 재정수지의 개선 등 칠레 경제 전반의 개선을 반영하여 2005년에는 Fitch가 칠레의 국

가신용등급을 종전 A- 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데 이어, 2006년에도 Moody's가 종전 Baa1에서 A2등급으로 두 단계 상향조정한 바 있음.

- 또한 2008년에도 S&P가 동가격 상승에 힘입은 견고한 경제성장세 지속, 정치적 안정에 기반한 원만한 경제정책 운용, 재정흑자 기조 유지, 채무구조 개선에 따른 대외취약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칠레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A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2009년 3월 Moody's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성장잠재력을 높게 평가하여 국가신용등급을 A1으로 상향하였음.

□ 국가신용도 평가 추이

- OECD : 2등급('08. 6) → 2등급('09. 7)
- S&P : A → A+('08.12)
- Moody's : A2 → A1('09.3)
- Fitch : A- → A('05. 3)

2. 정치·사회동향

가. 정치동향

□ 안정적인 정치체제 유지

- 칠레는 실용주의적 중도 정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고, 다수정당이 난립하고 있으나 각 정당은 여당인 중도좌파연합(Concertacion) 또는 야당인 중도우파연합(Alianza por Chile)에 소속되어 양당제 성격의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라고스 대통령(2000~06), 국정 주도권 확보 주력

- 집권 중도좌파연합 내 사회당 소속의 라고스 후보가 중도우파연합의 라빈 후보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아옌데 전 대통령 이후 27년 만에 사회주의자로서 대통령에 당선, 2000년 3월 취임하였음.
- 라고스 정부는 국민화합과 경제개방 지속추진을 약속하고 과거 피노체트 군사정권시의 인권탄압에 대해 사법부에 의한 공정한 해결 유도, 실종 구속자 유해의 소재지 파악 및 유가족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종신 및 임명 상원직 폐지, 대통령의 군인사권 확보 등 인권신장 및 민주제도의 공고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그러나 2003년 초, 민주당(PPD)·기민당(PDC)·사회당(PS) 등 여당연합 소속 의원 5명이 부패스캔들에 연루, 대법원 판결로 면책특권이 박탈됨으로써 여소야대 정국에 직면하는 등 집권기반이 극도로

약화되었음.

- 이에 대해 연정지도부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민신뢰 회복과 정국쇄신을 위한 부분 개각 단행, 잔여임기동안 추진할 6대 중점 국정과제³⁾를 제시하는 등 대국민 설득과 국정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인 바 있음.

□ 2005년 헌법개정 단행

- 칠레 의회가 2005년 8월 16일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대통령 시절 제정했던 헌법에서 반(反)민주적 조항을 삭제한 ‘민주헌법’을 통과시켰음.
- 이 헌법에선 피노체트가 창설한 국가안보협의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바꿔 권한을 대폭 축소했음. 대통령의 군 최고 수뇌부 해임권이 부활된 대신 그 임기는 4년(현행 6년)으로 줄였으며, 퇴역 군·경 수뇌부 등에게 할당됐던 임명직 상원의원(9석) 제도를 폐지하였음.

□ 2005년 12월 대선에서 칠레 최초로 여성 대통령 바첼렛 당선

- 2005년 12월 대선에서 사회당 출신의 바첼렛 전 국방부장관이 승리하여 2006년 3월 11일 칠레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취임하였음. 이로써 중도좌파 여당연합은 1990년 이후 4회 연속 집권에 성공하게 됨.

3) 6대 중점 국정과제는 ①경제성장 지속 ②극빈층 해소 ③의료보험 전 국민 확대 ④노인층 보호 ⑤ 교육수준 개선 ⑥기술·과학 통합 증진 등이며 야권, 경제계 및 노동계에서는 국가현대화와 경제성장 등 경제중심의 국정목표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재원확보 방안의 미흡, 세금 인상관련 정부 입장 미표명, 노동시장 안정화 계획 및 자본시장의 개혁 방안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함.

- 한편, 집권세력인 여당연합은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원 120석 중 63석, 상원 38석 중 20석)하여 정부의 정책 집행력이 강화되었음.

□ 꾸준한 개혁정책 추진 등으로 집권기간 중 80% 정책지지율 달성

- 취임 직후 교육 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 산티아고 대중교통 시스템 통합 계획인 트란산티아고(Transantiago)의 실행 과정에서의 혼란, 여당인 중도좌파연합(Concertacion)의 잇따른 정치 스캔들 등으로 바첼렛 대통령의 인기가 크게 하락하였음.
- 그러나 바첼렛 대통령은 국립보육원 확충 등 저소득층 무상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동 수입을 활용한 경제안정화자금을 통해 경기회복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로 인해 금년 상반기부터 지지율이 급상승해 현재는 약 80%대의 정책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음.

【참고 II-1】 트란산티아고(Transantiago) 계획

□ 배경

- 라고스 전 대통령은 낙후된 기존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여 통합된 교통 서비스를 수도인 산티아고시 전역에 제공하고자 하였음.
- 기존의 교통시스템은 저렴한 요금, 정부의 보조금 불필요, 시장 수요에 빠른 대처, 노선의 다양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었으나,
- 중소규모의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어 버스노선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운송객 수에 비례한 버스 운전자 임금지급으로 인한 난폭 운행, 높은 교통사고율, 교통 혼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
- 이에 정부가 내어 놓은 시책이 일명 ‘트란산티아고(Transantiago)’ 임. 정부는 트란산티아고 계획을 통해 버스의 운행 수 감축, 버스 노선 통합, 새 버스로의 교체, RFID 카드를 통한 전자 지불 시스템의 도입 등을 시행하고자 함.

□ 트란산티아고의 시행

- 원래 트란산티아고는 2005년 5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예산부족과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2006년 8월로 미뤄진 데 이어, 2007년 2월까지 연기되는 등 시행 전부터 난항을

겪음.

- 새로 취임한 바첼렛 대통령은 본 시스템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기 계약 사업자에 대한 위약금 누적, 조속한 사업시행에 대한 정치적 압력 등으로 인프라 및 교통시스템 개발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2007년 2월 시스템 가동을 단행함.
- 트란산티아고의 성급한 시행은 산티아고 시내의 교통을 마비시키는 사태를 가져왔으며, 바첼렛 대통령 및 집권여당에 대한 지도도를 급격히 하락시키게 됨.
- 이에 2007년 3월 바첼렛 대통령은 교통부 장관으로 Rene Cortazar를 임명하고, 신속하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조치하도록 전권을 위임하였음. Rene Cortazar 장관은 계약 사업자와의 재협상을 통해 버스 대수의 50% 확대, 일부 기존 노선의 활용 등을 이끌어 냈으나, 이로 인해 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트란산티아고 시행 관련 재정은 적자가 지속 중임.

(단위 : 백만 달러)

< 트란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	-	-5.0	-14.3	-34.6	-34.1	-36.3	-31.9	-47.3	-33.7	-39.3	-45.1	-41.3
2008	-31.8	-27.6	-28.0	-36.3	-46.2	-52.2	-54.2	-60.6	-63.8	-57.2	-66.9	-60.6

자료 : EIU

티아고 예산수지>

나. 사회동향

□ 빈부격차 축소, 고용사정 양호

- 칠레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빈곤 감축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절대 빈곤층이 1990년 총인구의 13.0%에서 2000년에는 5.7%, 그리고 2006년에는 3.2%로 크게 감소되는 등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빈곤문제가 진전을 보이고 있음.

〈표 II-12〉 빈곤층 비율 및 계층별 소득 분배 추이

(단위 : %)

	1990	2006
(총 가구 중) 빈곤층 비율	38.6	13.7
(총 인구 중) 절대빈곤층 비율	13.0	3.2
(총 소득 중) 최하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	4.1	4.1
(총 소득 중) 최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	57.4	54.6

자료 : Planning and Co-operation Ministry

- 1999년 경기 호조 따른 고용 증대로 실업률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2006년에는 6.0%까지 낮아졌지만, 2008년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및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실업률이 소폭 증가세로 반전하였음. 그러나 중남미 여타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양호한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II-13〉 칠레의 실업률 추이

(단위 : %)

연도	실업률	연도	실업률
2000	8.3	2005	6.9
2001	7.9	2006	6.0
2002	7.8	2007	7.8
2003	7.4	2008	7.1
2004	7.8	2009	7.8

자료 : CIA World Factbook

- 인구의 95%가 백인 및 메스티조이고, 주민의 70%가 카톨릭 신자로 높은 사회적 동질성을 나타내고 있어 인종간, 종교간 분쟁 가능성은 매우 낮음.

다. 주변국과의 관계

□ 주변국과는 원만한 관계 유지

- 미국, EU 등과는 FTA 체결 이후 경제통상관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외교적으로는 친서방주의를 표방하고 있음.
- 인접국인 아르헨티나 및 페루와도 에너지부문 및 운송 네트워크 통합이 확대되고 국경무역 및 투자가 증진되는 등 경제협력이 심화되고 있으나,
- 아르헨티나 에너지 위기에 따른 대칠레 가스 수출 축소로 발전용 천연가스의 100%를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하고 있던 칠레가 전력난을 겪으면서 양국간 갈등을 빚은 바 있고, 페루와도 국경문제가 잠재적 갈등요인으로 상존함.

3. 성장동인 및 장애요인

가. 성장동인

(1) 경제개방 지속으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안정되고 견실한 성장세 지속

□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통한 매력적인 기업 환경 제공

- 칠레는 1973년 피노체트가 집권하면서부터 개방과 경쟁의 무역자유화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음.
-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을 탈피하고 시장원리에 기초한 민간 주도의 성장정책 및 안정적인 거시 경제정책 운용,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차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제도의 지속 등 시장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GDP 성장, 물가 안정, 외국인투자 확대, 고정자본 형성 증대 등 견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해옴.
- 이러한 칠레 경제의 경쟁력은 여러 국제기관으로부터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는 칠레의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차별적인 법제도, 합리적인 수준의 사업비용, 외국노동자 고용 비제한, 높은 수준의 국제시장통합 참여도 등을 높이 평가하여 칠레의 국가경쟁력 순위('08)를 중남미 국가 중 1위이자, 세계 55개국 중 26위로 부여함.
- 또한 칠레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투명성 지수('08)에서 세계 180개국 중 25위, 헤리티지 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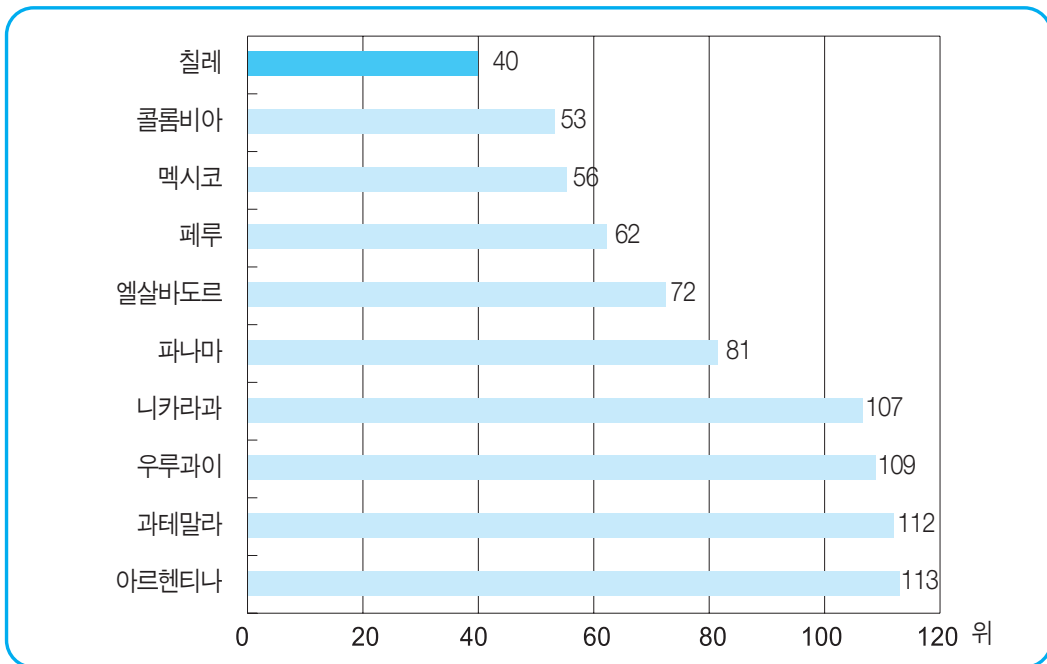
(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화 지수('08)에서 세계 166개국 중 8위, 세계은행(World Bank)의 Doing Business 지수('09)에서 세계 181개국 중 40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각각의 지수에서 중남미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정부투명성, 개방성, 비즈니스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중남미 선두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

【참고 II-2】

칠레의 기업경영여건

- 2007년 6월에서 2008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181개국의 기업 경영여건을 다각적으로 평가한 2009 Doing Business Report에 따르면, 칠레는 종합평가 순위에서 세계 40위, 중남미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음.

〈중남미 기업경영여건 순위〉



자료 : www.doingbusiness.org

- 사업개시, 사업허가, 노동자 고용, 재산 등록, 조세납부, 대외무역, 계약 실행 등 대부분의 항목평가에서 중남미 지역 평균보다 낮은 비용과 적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간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노동시간경직성지수, 해고난이도지수, 비임금 노동비용 등 노동자 고용 관련 지표 중 일부에서는 OECD 국가의 평균보다도 더욱 유연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지수는 1~100 사이에서 평가되며, 수치가 클수록 더욱 경직적임.

〈중남미, OECD 평균 노동자 고용 여건과의 비교〉

항목	칠레	중남미	OECD
고용난이도지수	33	34.7	25.7
노동시간 경직성지수	20	33.1	42.2
해고난이도지수	20	25.6	26.3
비임금 노동비용(임금 기준)	24	31.2	31.4
해고비용(임금지급 주간기준)	52	53.9	25.8

자료 : www.doingbusiness.org

(2) FTA를 통한 경제통합 추진

□ 지속적인 FTA 추진을 통한 시장 확대 노력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국인 칠레는 지역 경제블록 가입 또는 참여 노력과 개별 국가와의 쌍무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중남미 무역자유화의 허브 역할 담당하고 있음.
- 1994년 APEC 회원국으로 가입, 2010년까지 무역자유화 조치 완료를 천명하는 등 APEC 무역자유화를 위한 보고르(Bogor) 목표⁴⁾에서 선진그룹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1998년 3월 제2차 미주정상회담을 개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칠레는 중남미 역내 국가들 뿐 아니라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역외 주요국들과도 FTA를 성사시키는 등 쌍무적인 자유무역협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현재 한국을 비롯한 50개국과 FTA를, 볼리비아 등 9개국과는 준 FTA인 경제보완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호주, 에콰도르, 말레이시아와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

4)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Bogor)에서 열린 제2차 APEC 정상 회의 선언문에 포함된 내용으로 APEC 국가 사이에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달성하기로 목표를 정함.

〈표 II-14〉 칠레의 FTA 체결 현황

		체결일	발효일
E U (2 7 개 국)		2002. 11. 18	2003. 2. 1
P 4	브 루 나 이 뉴 질 란 드 싱 가 폴	2005. 7. 18	2006. 11. 8
캐	나 다	1996. 12. 5	1997. 7. 5
중 미	코스타리카	1999. 10. 18	2002. 2. 14
	엘살바도르		2002. 6. 3
	과 테 말 라		-
	온 두 라 스		2008. 7. 18
	니 카 라 과		-
중	국	2005. 11. 18	2006. 10. 1
콜 롬	비 아	2006. 11. 27	2009. 3. 8
E F T A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 르 웨 이 스 위 스	2003. 6. 26	2004. 12. 1
일	본	2007. 3. 27	2007. 9. 1
한	국	2003. 2. 15	2004. 3. 1
멕	시 코	1998. 4. 17	1999. 8. 1
파	나 마	2006. 6. 27	2008. 3. 7
페	루	2006. 8. 22	2009. 3. 2
미	국	2003. 6. 6	2004. 1. 1
터	키	2009. 7. 14	-

자료 : 칠레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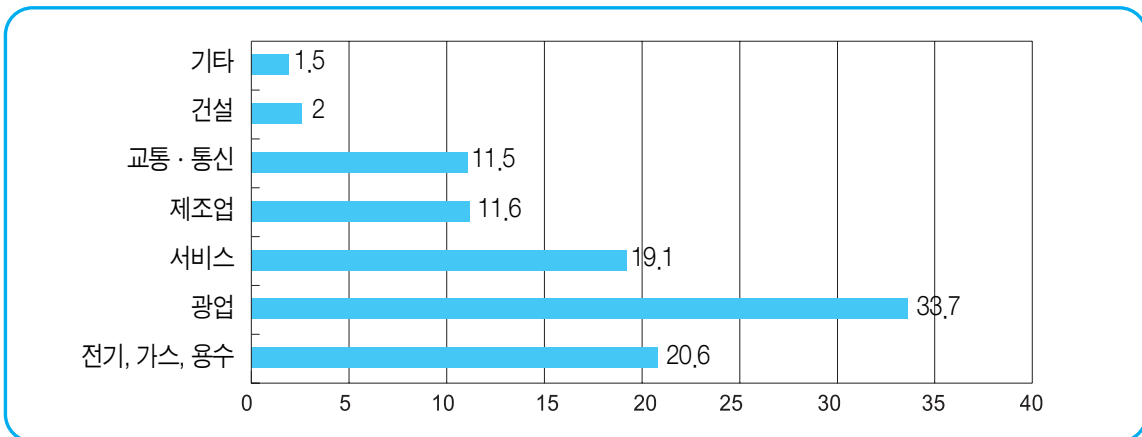
(3) 풍부한 부존자원 및 지형학적 장점

□ 칠레는 동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

- 동, 요오드, 레늄, 리튬 등의 광물자원 매장량이 세계 1위의 국가인 동시에 이들 자원이 지표면에 가까이 매장되어 있어 채광의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음.
- 2008년 세계 동 생산량의 36%, 세계 요오드 생산량의 61%, 세계 리튬 생산량의 37%가 칠레에서 생산되는 등 생산량 부문에서도 세계 1위의 자리를 고수하며, 세계 광물 수요에 대한 공급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풍부하고 다양한 광물자원은 칠레 전체 수출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등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최근 광물자원의 국제가격 상승은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입 증대, 외환보유고 증대 등에 기여하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그림 II-1〉 1974~2008년간 칠레에 유입된 FDI의 부문별 비중

(단위 : %)



자료 : Prochile

□ 남북으로 뻗은 지형학적 이점으로 교역, 농작물 재배 등이 유리

- 남북으로 무려 4,000km를 넘는 해안선이 태평양에 접해 있어 중남미 무역허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지형학적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긴 해안선을 따라 일찍이 형성된 항구는 아시아로의 진출에도 용이함.
- 칠레의 국토는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12개의 주로 나누어져 있는데, 칠레의 북쪽 끝인 1번 주(Tarapaca)는 아열대, 남쪽 끝인 12번 주(Magallanes)는 한대지방으로, 폭넓은 기후대 때문에 농업과 산림분포가 매우 다양함. 소맥, 보리, 옥수수, 감자 등의 곡류 뿐 아니라, 포도, 사과, 아보카도, 자두, 복숭아, 배 등 다양한 과일이 재배되는 등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국토에서 다종의 농산물 재배가 1년 내내 가능함.

나. 장애요인

(1) 원자재 수출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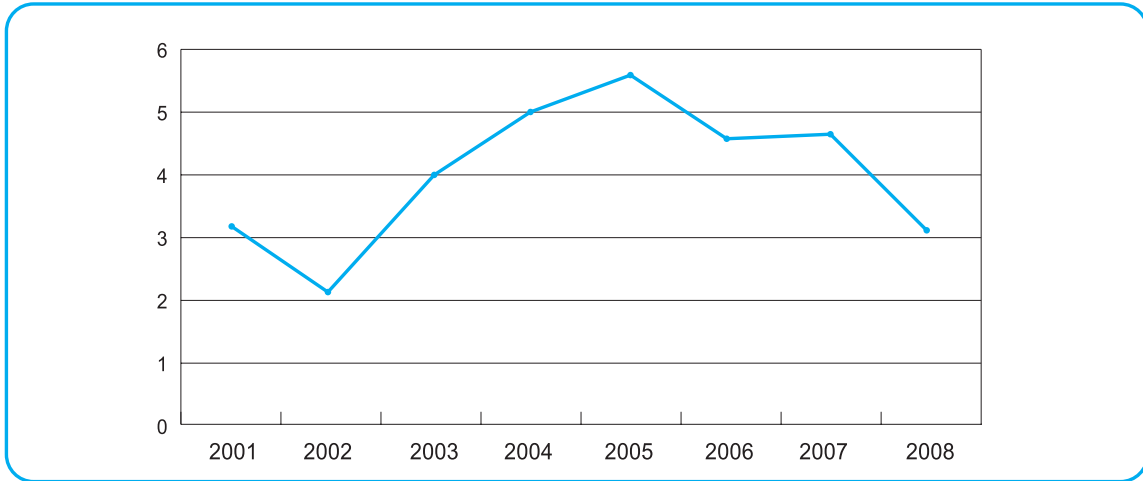
□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

- 동을 비롯한 광산물 수출이 칠레 연간 수출의 65%에 육박하는 등 특정 산업에의 편중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취약함.
- 특히, 동의 수출 비중이 광산물 전체 수출의 약 58%에 이르고 있어 국제 동가격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총 수출액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동가격의 등락과 칠레 경제성장률의 추세가 동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그림 II-2〉 2001~2008년도 칠레의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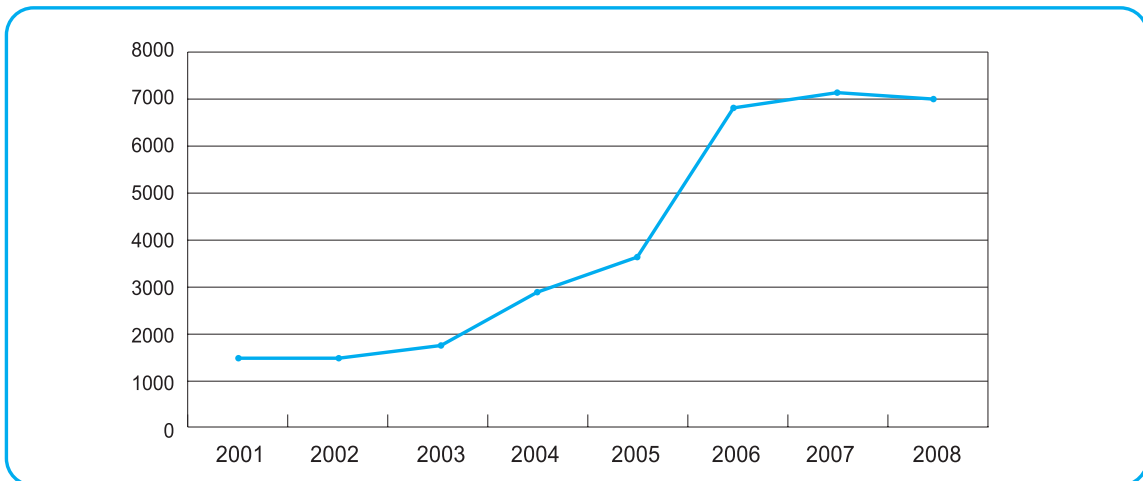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IFS

〈그림 II-3〉 2001~2008년도 국제 동가격 추이

(단위 : US\$/ton)



자료: 한국광물자원공사

- 최근 동의 국제가격이 중국의 수요 증가로 상승함에 따라 높은 수출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가격이 다시 하락할 경우 칠레 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2008년 하반기 국제 동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자 수출 규모가 급감하였음. 2009년 2/4분기부터 동 가격이 재차 회복되고는 있으나 향후 칠레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단일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구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 기반이 취약

- 수입자유화에 따른 급진적인 시장개방으로 광업, 농림수산업 등 전통적인 1차 산업 중심에서 제조업의 발전단계를 건너 뛰어 바로 3차 산업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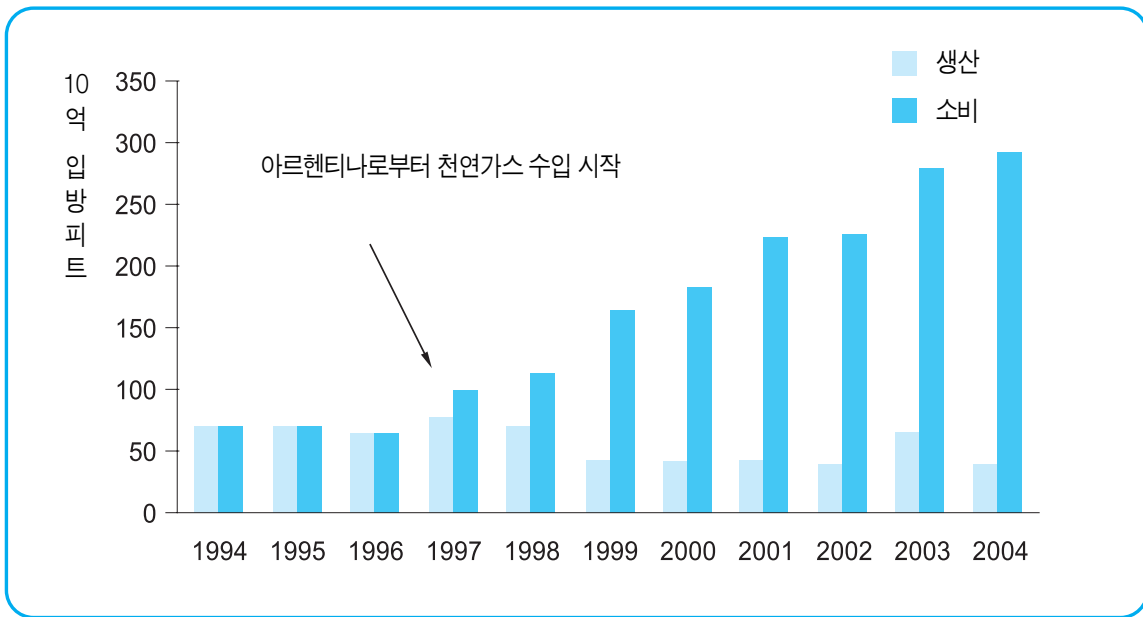
(2) 천연가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및 전력난 심화

□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 심화

- 동, 요오드, 레늄, 리튬 등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세계 1위이나, 탄화수소 자원이 부족하여 석유 및 천연가스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수력은 전통적으로 칠레의 주요 전력원이었으나,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 연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불규칙한 수력 발전량 등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칠레정부는 수력 의존도를 낮추고자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립하고 1996년부터는 아르헨티나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시작함.
- 칠레의 전력 생산은 수력과 화력에 거의 반반씩 의존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의 반 이상이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음. 그러나 칠레의 천연

가스 소비는 연간 263.4bcf(10억 입방피트)인 반면, 천연가스의 생산은 67.1bcf에 그치고 있어 천연가스의 수입의존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그림 II-4〉 칠레의 천연가스 생산 및 소비



자료 : EIA

- 경제회복에 힘입어 자국의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4년 칠레로의 천연가스 공급량을 대폭 축소하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천연가스 공급 부족으로 칠레의 전력생산에 큰 차질을 빚게 됨.
- 천연가스 공급부족으로 발전기업들이 천연가스 대신 디젤로 대체하자 2007년 들어서는 화력발전 중 천연가스의 비중이 낮아지고 디젤의 비중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남. 디젤로의 에너지원 대체는 전력생산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칠레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